

송원콘도 보증금 반환소송, 보상은 선착순?

회원 수천명 피해에도 반환 가능금액 35억원 불과 남지리산관광개발 대표이사 등 4명 배임혐의 고발

옛 송원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보유한 광주·전남 지역 계약자들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회원권 계약자들만 1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35억원(200명)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피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자칫 소송 순위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소송을 서두르는 조짐도 엿보이고 있다.

2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송원콘도 입회 반환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중인 회원권 계약자는 77명으로 이들이 제기한 소송 가액만 1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콘도 회원권 계약자 및 소송 시기를 감안하면 다음달 초 200명 규모까지 소송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공동소송

인단측은 예상하고 있다.

당장, 일반인 계약자 뿐 아니라 광주시 동·남구, 여수·광양 등 자치단체도 직원 휴양시설 확보를 위해 회원권을 보유하고 다 손해가 예상되면서 소송에 참여했거나 검토중이다.

동구의 경우 10개 구좌(3310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구 5개 구좌(1240만원), 북구 5개 구좌(1490만원), 광산구 5개 구좌(186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도 직원 휴양시설 확보를 위해 17개 구좌(8790만원), 전남도는 2개 구좌(3210만원)를 확보해놓고 있었다가 업체 부도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피해자들의 경우 현재 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유력한 보증금 회수 방법으로 소송인단은 파악하고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허위 계약을 하는 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 재산은 환수될 수 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옛 송원콘도 입회계약자가 우리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다툼이 없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계약자는 "송원콘도 회원들은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납입하는 동안 IMF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원콘도측을 믿고 보증금을 전액 납입했으나 회사 측은 이러한 회원들을 배신하고 전 객실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 처분했다"며 소송 제기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송 특성상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다음달 7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인 35억원에 불과해 상당수 회원권 보유

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원콘도는 ㈜송원의 계열사였던 남지리산관광개발(주)에 의해 운영돼 오다가 IMF 직전인 지난 1996~1997년께 회원을 모집해 운영했다. 콘도 측은 이후 지난 2010년께 전 객실에 대해 우리은행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자산의 대부분을 처분했다. 이 때 회사측을 믿고 보증금을 납입한 회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현재, 송원콘도 건물은 지난 4월 경매절차가 완료된 뒤 명칭이 바뀌어 운영 중으로, 낙찰자는 기존 송원리조트회원들을 승계할 의사가 없어서 당시 보증금을 냈던 회원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송원콘도 피해자 공도(60)씨 등은 지난달 24일 남지리산관광개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수사 당국에 고발해 광주북부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허위 계약을 하는 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 재산은 환수될 수 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옛 송원콘도 입회계약자가 우리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다툼이 없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계약자는 "송원콘도 회원들은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납입하는 동안 IMF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원콘도측을 믿고 보증금을 전액 납입했으나 회사 측은 이러한 회원들을 배신하고 전 객실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 처분했다"며 소송 제기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송 특성상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다음달 7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인 35억원에 불과해 상당수 회원권 보유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9 해질 17:33
해짐 19:39 달짐 03:12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	24/31	보성	구름맑음	23/31
목포	구름맑음	24/30	순천	구름맑음	24/32
여수	구름맑음	24/29	영광	비온뒤맑	24/30
나주	비	24/32	진도	구름맑음	24/31
완도	구름맑음	24/31	전주	비	24/29
구례	비	23/32	군산	비	24/29
강진	구름맑음	24/31	남원	비	23/29
해남	구름맑음	24/32	홍산도	구름맑음	23/28
장성	비	23/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1.0
남부	면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해	면바다(동)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면바다(서)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08	12:05	05:53	17:47
여수	07:11	20:04	01:26	13:12

◇주간 날씨

30(목)	31(금)	8/1(토)	2(일)	3(월)	4(화)	5(수)
25/33	25/32	25/32	25/33	24/33	24/33	24/33

◇생활지수

- 주요:
- 식중독:
- 운동:
- 빨래:



“올해도 풍년 오소~” 28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 발산마을 들녘에서 열린 '제17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행사에 참가한 '만드리 보존회' 회원들이 들노래인 '만드리'를 흥겹게 부르고 있다. 서구는 발산마을 등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들노래의 명맥을 잇고자 각종 문화사료들을 검증해 '만드리 풍년제'를 복원, 1999년부터 재현해 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목포서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전남 을 두번째...어패류 익혀 먹어야

전남에서 올 들어 두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에 사는 이모(56)씨가 지난 15일 시장에서 구입한 산낙지를 집에서 먹은 뒤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됐다.

간경화 질환이 있는 이씨는 증상이 호전돼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6월 영광에서 처음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알려졌다. 전남도는 알코올 중독자나 만성 간질 환·고혈압·당뇨병 등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면 절대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말고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 접촉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패류를 다루는 음식점에서는 수조관 물을 자주 갈아주고 어패류 조리기구는 다른 조리기구와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김싱발열·오한·구토·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고 치사율이 높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때 아닌 영·유아 '성홍열 주의보' 음주 측정, 기준 밑돌아도 의심되면 재측정

7월에만 107건 검출

초봄과 늦은 겨울에 유행하는 성홍열이 최근 영·유아와 소아에게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소아과를 찾은 성홍열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성홍열 원인체의 연중 발생과 유행 양상을 파악한 결과 7월말 기준 검사건수 207건 중 107건(51.6%)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전체 검사건수(218건)나

양성건수(106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6~7월, 2개월간 검사건수가 91건에 양성률도 55%에 달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40건에 양성률 20%와 비교해 건수나 비율이 크게 늘었다. 성홍열은 3군 법정감염병으로 목의 통증과 함께 39°C 이상의 고열, 두통, 구토증상이 나타난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개인 위생 준수와 장난감, 놀이기구 세척 등 주변 환경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

호흡측정기로 잤 음주 측정이 단속 기준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더라도 운전자 태도 등을 고려해 음주가 의심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채혈 방식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 운전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음주운전으로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에 불과했으나, 피해자들과 경찰의 요구로 재측정 하자 0.239%가 나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경찰이 채혈을 강요하지 않았고, 김씨로부터 동의를 받았던 것을 고려해 적법한 음주측정이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2차 측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형뉴스

전통시장 주변 주차 9월까지 허용

말바우시장·송정매일시장 다음달부터

광주지역 일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차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2곳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차를 허용한다.

대상지는 북구 말바우시장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등 2곳이며,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말바우시장은 동문대로(담양→광주 방향) 한방향 차선이며, 송정매일시장(송정사랑병원→송정리역) 양방향 갓길 차선이다. 서방·남광주·무등시장은 기존 방식대로 오전 5시~9시, 오후 5시~9시를 제외한 시간대에 주차차는 가능하다. /박기용기자 pboxer@

앞으로의 금융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저금리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고 7,000만원

문화신협과 북광주신협에서 신속히 지원 해 드리겠습니다

매일상환 조건표(예시)				
구분	180일	360일	500일	700일
1,000만원	56,874	29,103	21,332	15,628
3,000만원	170,622	87,309	63,996	46,885
5,000만원	284,371	145,515	106,660	78,142
7,000만원	398,120	203,721	149,325	109,399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블루밍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북광주신협 572-8167

